

봉헌의 의미



나 주님이 너희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예제 20,20)

요즘 들어 일초 일초 흘러가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제 서품 미사 때 하느님과 교회에 온전히 봉헌하겠다고 서약을 한지 어느새 20년이 넘는 걸 보면서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안에서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지낼까를 계획해 보게 됩니다. 물론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방향이라도 설정해야겠습니다. 그래야 가져야 할 것은 가지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석학 다산 정약용은 마음에 대한 공부를 마지막으로 했다고 합니다. 유학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삶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가 공부한 다양한 유학의 가르침 가운데 중용(中庸)은 매사에 진심을 다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성(誠)과 함께 조심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경(敬)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성(誠)이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곧 중용의 도다. 군자들은 성을 통해 선한 마음을 지켜나가고, 때에 맞춰 행하는 절제와 균형의 삶을 살아간다.”(“다산의 마지막 공부”, 265쪽) 맹자는 이 네 가지 덕목은 마땅히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것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것, 양보할 수 있는 겸손함,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등 네 가지는 양심을 가진 균형 잡힌 사람이 가질 수 있

는 본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敬)은 삼감인데 “해야 할 일은 경건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옳지 않은 일을 먼저 생각해서 가려야 한다는 것”(255쪽)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목표에 이르고자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멈출 수 있는 정의 로움을 위해서입니다. 목표에 이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정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톨릭교회 윤리에서도 가르치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중용의 핵심 가치인 성과 경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개념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지만 특히 세례로써 하느님께 봉헌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곧 삶의 모습이 하느님의 보편적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한다 하더라도 삶의 모습이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맞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아름다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봉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본지 주간



가정교리 (10)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 호칭은 예수님께 대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수’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구원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뜻처럼 하느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실현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4,12ㄴ)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자주 쓰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입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그리스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서, 사제로서, 예언자로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명 안에서 메시아 왕권의 참뜻을 밝히셨습니다. 또 마귀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마태 4,3,6 참조)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유혹 하지만 결국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주권을 가진 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똑같은 권능과 영예와 영광을 받을 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간추린 가톨릭교회 교리서, 59-61쪽 참조) **금빛**

교황님 한 말씀

“선교는 그리스도인 삶의 산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사실 사도적 공동체로 탄생했습니다. 선교 공동체이지 개종을 강요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교사가 되는 것, 사도가 되는 것, 선교하는 것은 개종을 강요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서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교회의 중요한 차원에 관한 것입니다.

- 2023년 1월 11일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수요 일반알현 中 -



본당 소개

경주 충효성당



경주시 충효7길에 위치한 충효성당(주임신부 김성복 데이폴라)은 2012년 8월 24일 설립된 본당입니다. 경주 성건성당에서 분가하였으며, 주보 성인으로 천주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경주 충효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고, 250여 명이 주일미사에 참례하고 있습니다.

김성복 데이폴라 주임신부

는 2023년은 “살아 온 10년, 걸어가야 할 100년”을 사목 목표로 설정하고, 교구의 ‘친교의 해’에 맞추어 신자들의 친교와 화합을 위한 3가지 사항을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과 친교’로 전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타본당 신부님들을 초빙하는 특강을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자 간 친교’ 생활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신자 음식나누기’와 반별 ‘웃놀이 리그전’을 연중 실시하여 연말에는 큰 잔치와 시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과의 친교’로, 한 달에 한 번 충효동 일대 자연보호 및 구역별 쓰레기 줍기를 통하여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재 : 박헌식 프란치스코 | 살레시오 기자

이구동성

세계 여러나라 말로 미사경문을 배워 볼까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It is right and just.

[영어] 잇 이즈 라이트 앤드 저스트



それはとうとい大切な務めです。

[일본어] 소레 와 토우 토 이타이세츠나 츠토 메 데 스



这是理所当然的。

[중국어] 저 시 리 쉬 당 란 더



Thật là chính đáng.

[베트남어] 텃 라 쯤 당



Es justo y necesario.

[스페인어] 에스 후스토 이 네쎬싸리오

교회의 상징들

성 다미아노 십자가



아씨시의 성다미아노 성당에 걸려 있었기에 성 다미아노 십자가로 불려집니다.

12세기 시리아 수도자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이 십자가가 많은 신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 “프란치스코야! 쓰러져 가는 나의 집을 수리하여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입니다. **금빛**

찬미받으소서(9)

미약한 반응



▶ 읽기

55항 사람들이 생태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나쁜 소비 습관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은 사라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 판매를 통하여 즉각적 이익을 얻는 시장은 더 많은 수요를 자극합니다. 지구 밖

에서 이 세상을 관찰하는 이가 있다면 때로는 자기 파괴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동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 생각하기

Q. 생태 위기에 대한 인류의 소극적 대응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생태 환경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자주 접하고, 이 문제의 근원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과 우리의 생활양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생태 위기에 대하여 큰 관심을 두지 않거나 요청되는 변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면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는 소극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태 위기의 뿌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현재 직면한 생태 위기는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임에 앞서 근본적으로 내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지요.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더 넓어가고 있습니다.” 내적인 광야와 외적인 광야의 크기가 서로 비례한다는 교황님의 말씀처럼, 지구 생태계의 황폐화는 우리 내적 문제의 외적 징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실천하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위협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그 위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 속에서 힘 있는 자들은 경제성장 및 기업의 이익까지 생각해야 하므로 기후위기 대처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후위기 현실을 직시함과 동시에 정부가 기후위기를 위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구 보호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간다면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쓴소리를 낼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KBS 시사, 기후위기 과장아닌가요?

생태 명성 (2)

자연 vs. 환경 vs. 생태

‘자연(nature)’은 인간의 힘을 보태지 않은, 우주에 있는 천연 그대로의 모든 존재를 의미하고, ‘환경(environment)’은 자연환경, 사회환경, 가정환경 등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세계를 의미하므로 나와 주변이 확연하게 나누어진다. 그에 비해 ‘온 생명의 거처, 집’을 의미하는 ‘oikos’에서 기원한 ‘생태(ecology)’는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주변(환경)과 관계 맺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과학 용어이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생태’는 많은 경우 잘못 이해되어 사용된다. ‘생태하천’, ‘생태 체험’처럼 마치 깨끗한 자연 상태를 ‘생태적’이라고 생각하여 오용되기까지 한다. 개념적으로 ‘환경’이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제외되어 있다면, ‘생태’ 안

에는 관계의 주체인 ‘내’가 포함되어 있다. 작금의 시대를 ‘환경 위기’로만 본다면 단순히 휴지를 줍고 나무를 심는 정도의 일로 그칠 수 있지만, ‘생태 위기’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내가 현재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이 집(우주, 지구)의 위기이므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고비로 다가온다.

관계의 단절과 생태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을 믿는 우리에게 절망은 없다.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멈춤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 깨닫고 새로워지기를 희망한다.

윤 에피파니아 수녀
(예수성심시녀회)



몸의 신학 (8)

몸의 성사성(聖事性)

사람의 몸은 본질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성사적인 존재이다. 성사(聖事)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보면 “보이지 않는 은총의 보이는 표지”, 즉 눈에 보이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표지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라는 말씀이 보여주듯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선함과 아름다움은 가시적인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더구나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만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는 당신 자신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성사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순수함(원순수)이다.

“사람과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세 2,25) 우리의 몸 그 자체는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아름답고 선한 존재 그 자체이다. 오늘날 우리의 알몸을 바라보며 체험하게 되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한 결과이다. 인간이 범한 원초적인 죄(원죄)의 결과로 사람은 자신의 몸을 감추려고 한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창세 3,10)

우리의 죄의 결과가 가져온 수치심은 하느님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몸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몸을 하느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숨기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느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느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적인 표지이다.

석상희 요셉 신부
(교구 사목국 차장)



부부 이야기

혼인생활 배우기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22년전, 신입 여직원인 세실리아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조개를 띄우며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세실리아의 모습은 제게는 하늘에서 천사가 나뉘 보러 찾아온 것 같았고,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 나오는 나무꾼처럼 선녀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잡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실리아를 잡고 우리 둘은 함께 사랑이라는 출발점에서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와 배움도 없이 어린아이들 소꿉장난하듯 혼인 생활을 시작한 우리에게 영원할 줄 알았던 꿈만 같은 시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혼인 전, 그리고 신혼시절에는 여러 드라마나 주변에서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를 못했었기에 우리 둘의 관계가 악화되자 더욱 현실이 참담했으며, 매 순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처형에게 전화가 와 '박서방 그동안 미안하고 수고했어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정말 이렇게 끝인 건가!' 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세실리아와 노력을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ME 주말을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남자의 우선순위는 사회에서는 성공하기 위해 온몸을 바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우선순위 안에는 가장 중요한 배우자인 세실리아는 없었습니다. ME주말이 진행되는 동안 세실리아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저를 바라

보던 세실리아도 그런 저의 마음을 읽었는지 저를 위로해주었고, 다시 한 번 우리는 꺼져있던 연애 시절 애틋한 감정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실리아의 전부를 안다며 자신했던 나의 자만이 우리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우리 부부의 대화가 서로 동문서답을 한 것처럼 잘못하고 있었음을 알았고 무엇보다, 잊고 살아왔던 세실리아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되는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ME주말을 통해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실리아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세실리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한 노력과 본인의 변화는 결국에는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완전한 부부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살아가시는 선배ME 부부와 ME공동체 안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



박성규 빈첸시오, 박현미 세실리아 부부 (ME 대구협의회)



내 아들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너의 눈이 내 길을 즐겨 바라보게 하여라.

(잠언 23,26)

이야기가 있는 가족 사진

가족관계의 그리움



50여년 전 빛바랜 사진 속 우리가족 6남매와 사촌들이 웃놀이 집중하고 있는 그 시절 그리운 장면이다. 당시에 딸들은 웃놀이 등에 적극 참여하지도 못하고 어

린동생을 돌보거나 엄마의 일손을 돕는 안쓰러운 시절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당연히 나눠 먹고, 쪼개 먹고, 받아 입고, 배려했던 공동가족의 정겨운 모습들이 떠오른다. 온 동네 사람들은 서로 간의 삶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았다. 현실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꿈같은 모습이지만 따뜻했던 가족관계의 그리움은 언제나 가득하다.

그러나 오늘날 출생인구는 감소하고, 1인 가족이 늘고 있고, 이웃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혼자서는 잘놀아도 함께하는 단체 생활은 힘들어 하는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올해 사목교서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서로를 향해,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친교영성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

김영숙 율리아 (성서 성당)

추억속으로

종신서원식



1950년대 추정 샬트르 성바오로수녀원 서울관구 종신서원(명동성당)



1981년 툇정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종신서원(파티마 병원 성당)

(제공: 교구사료실)

부모와 자녀 관계 (10)

자녀가 살고 살아야 할 사랑이 있는 그곳

막 태어난 자녀가 온몸으로 만난 세상의 처음은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자녀에게 놓인 그 처음이 세상 기준에 완벽한 것보다 마땅히 총애와 감사로 안정된 부모가 함께여야 함을 예수님 탄생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압니다. 자녀와 부모 모두는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며 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프로그래밍 된 자녀의 사랑이 오류 없이 실행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으로 부모가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부는 결혼에 이르러서 사랑에 더하여 의지적 사랑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 깨닫습니다. 부부는 생활에서 원초적이며 역동적인 감정 경험을 하면서 자기만 몰랐거나 두 사람 다 알 수 없었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방식뿐 아니라 배우자의 방식으로도 협력해야 할 필요와 배우자를 무조건 수용할 것에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런 필요적 상황에서 부부 친밀감은 부부 관계를 성장하게 하고 결혼만족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부부 친밀감이 서로의 사랑이 오해 없이 잘 교류되도록 많은 통로와 넓은 통로를 만들고 유지하는 역량으로 작용하면서 부부 갈등 해소나 생활 스트레스 관리를 공감 대화 그리고 일치하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친밀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먼저,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지속하면 실망과 회피로 정서 교류의 기회가 적어집니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호감과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 보이면 효과는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둘만의 긍정적인 정서적 접촉면을 넓혀야 합니다.

눈 맞춤과 미소, 5초 포옹과 같은 스킨십을, ‘사랑해. 고마워.’와 같은 언어적 표현을 그리고 미사, 기도, 취미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함께하기를 ‘잠자리에 들거나 일어날 때처럼 실천 가능한 시간을 합의해 실천과 행동으로 교류합니다. 하루 한 번 이상 말 또는 문자로 안부, 특별한 경험, 고마움, 칭찬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과한 행동 또는 폭발적 감정 반응이 있을 때, 부부는 개인의 발달 사에 비추어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의 대화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편이 되거나 내 편이 있다는 믿음은 성장과 통찰을 위해 노력하게 하고 노력하는 배우자를 기다릴 때 힘이 됩니다.

잘 사랑하며 행복한 부모로부터 자녀는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태어난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난 엄마 아빠 걱정 안 해. 둘이 잘 지내니까.’, ‘갈등이 있어도 화해하면 돼.’, ‘사랑하며 살아야지’라는 긍정적 경험을 합니다. 평화와 이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 가정에서 자녀는 자신을 위해 집중합니다. 성장하며 사랑하는 부부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는 쉴 수도, 보충하기도, 치유하기도, 천진난만하게 놀기도 하는 자녀의 아지트가 됩니다. 바로 지금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해봅시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실천한다면 다음이 익숙해지고 조금씩 덜 어렵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생각은 내려두고 ‘한 가지 실천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혜숙 에밀리아나
(대상관계심리상담사)



편지글

사랑하는 나의 딸 정혜인 아델라에게

사랑하는 딸!

이렇게 아빠가 딸에게 편지를 쓰려리 머쓱하기도 하고, 어떤말을 해야할지 한참을 망설였단다. 하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 몇글자 적는다.

어릴적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언제 이렇게 훌 커버렸는지 남자친구도 만나고, 출근하려 집을 일찍 나서는 너를 볼 때 마다 ‘아니 벌써’라는 노래가 생각나는구나.

나를 많이 닮은 너를 보면서 자기 앞길은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쓰이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고 싶은데, 이제 아빠의 나이도 자꾸 들어가니 미안하고, 안타깝구나.

임용시험 준비한다고 서울에 짐을 풀어 주고 내려오는 길에는 이게 맞나 했고, 젊고 에너지 넘칠 때 공부에만 매진하는 것이 맞나 싶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지금은 하양의 어느 학교 선생님이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오는 너를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란다.

얼마전 새로운 학교에 면접 시험을 하러가던 날 아빠는 하나님께

기도 드렸단다. “하느님, 우리 아델라 실수하지 말고 준비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어찌 되었던 우리 아델라는 수고했고, 하느님께는 참 감사했단다.

제발 나가서 독립하라고 해도 나는 평생 엄마 아빠하고 이 집에서 살거라고 껌딱지처럼 붙어 있겠다고 하는 네 말을 들을때면 아이고 그러거라.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거라 마음속으로 대답했단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 지라 많이 부족하지만, 네가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단다.

“사랑하는 우리 딸 그 저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지내거라. 사랑해 우리딸!”

정무현 바오로
(수성성당)



정무현 바오로 가족

노년의 명성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노년의 애창곡이며 신나는 놀이마당에 어울리는 유행가 일부분이다. 이 노랫말은 노년의 자신감과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것 같아 인상적이다. 노년은 사랑하기, 공부하기, 기도하기 딱 좋은 시기이다. 사랑, 공부, 기도는 자유로운 시간과 장애가 없어야 한다. 사랑은 온정이, 공부는 인내가, 기도는 침묵이 필요하다. 노년은 온정과 인내 그리고 침묵이 필요하고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이러한 덕목을 실천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년을 여유의 세 대라 일컫는다.

젊음은 빠름이 노년은 느림이 미학이다. 노년은 신체활동은 느리지만 정신활동은 청년과 다름이 없다. 느린 신체활동을 빠른 정신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노년이 청년과 같이 빠름을 추구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자조 섞인 푸념을 뱉는다. 유연성과 순발력이 떨어질 때 나이 탓으로 여겨 좌절과 포기하면 삶의 질은 낮아지고 행복감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 의식을 하면 긴장되듯, 나이를 의식하면 두려움에 젖어 들 수 있다. 두려움은 좋은 결과를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체 일부분의 존재를 느낄 때 상처와 통증을 알 수 있듯 나이도 마찬가지로 인식할수록 더욱 늙음을 느껴 자신감이 떨어진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민감한 편이다. 청년은 나이를 더하고 노년은 나이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동물 세계에서 덩치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는 만남의 자리에서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경험과 지식, 역량과 능력 그리고 신분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나이가 우선이다. 영혼이 건강한 노년은 지혜와 경륜을 축적한 존재로 늙은 것이 아니

라 익은 사람이다. 신체적 노쇠를 정신적 창조로 가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삶의 흔적이다. 나이를 자랑하기 전에 젊음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나눌 때 아름다운 노년, 존경 받는 노년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과 싫은 것을 구분한다. 좋아하는 것은 가까이 자주, 싫은 것은 멀리 가끔 하려고 한다. 그래서 노년이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이 나이에’가 입 밖으로 나오고 손사래를 치지만, 하고 싶을 때는 ‘내 나이가 어때서’라며 팔을 걷고 나선다. ‘이 나이에’는 부정적 표현이고 ‘내 나이가 어때서’는 긍정적 표현이다. 긍정적인 사고가 부정적 사고 보다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든다. 밤을 잊은 청년처럼 나이를 잊은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나이를 잊고 당당하게 생활하면 백세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노년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2베드로 3,8)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백 년이다. 천년이 하루 같은데 백 년은 두 시간 정도가 된다. 짧은 인생살이 나이를 잊고 하루를 천년 같이 매 순간을 유익하고 뜻깊게 보내는 노년의 삶이 되어야 한다. “거저 얻었으니 거저 주어라.”처럼 거저 얻은 나이를 자랑하지 말고 ‘내 나이가 어때서’를 외쳐야 한다.

아름다운 노년, 멋진 노년은 뒤따라오는 젊은이들에게 바른 발자국을 남긴다. ‘이 나이에’가 아닌 ‘내 나이가 어때서’를 외칠 때 ‘이제 끝이다’가 아닌 ‘아직은 살아있다’를 보여주는 건강한 노년, 당당한 노년, 아름다운 노년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최상원 토마스
(가톨릭신문 명예기자)



활기찬 노년

범어성당 프란치스코 성경대학



밀양 명례성지 순례

대구 범어성당(주임신부: 최환옥 베다) 프란치스코 성경대학을 소개합니다. 프란치스코 성경대학(매주 금요일, 09:30-13:00)은 2003년 설립되었으며, 65세 이상 신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수강생 80명과 봉사자 16명이 함께하였으며, 마태오 복음 강의와 미사, 반별 말씀 나누기, 점심식사로 진행됩니다.

학장인 임봉수 사도요한 형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 봉사자들도 봉사하는 것에 더 보람을 느끼고 더 열정적으로 봉사하게 합니다. 2023년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친교의 해를 살아가는 성경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범어성당 프란치스코 성경대학의 활기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빛**

노년의 향기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신부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나누어 보라 하셔서 당황했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깊이 묵상한 적이 없는 나를 뒤돌아 보라는 주님의 채찍으로 알고 펜을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은 지 벌써 50년, 인생의 마지막 석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 천주교 신자라는 딱지만 달고 젊은 시절을 한 치의 양보 없이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원하는 것을 청하면 도깨비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운동선수 생활을 했기에 누구보다도 건강만은 자신있다고 자만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목주를 손에 쥐고 매일미사를 다니면서 조금씩 나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까? 이제부터 사는 인생을 덤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교회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순명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도 주님이 개입 안 하신 적이 없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지만 믿음이 없어 주님을 알아뵈지 못한 제가 멍인이지요, 귀머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그리고 지금껏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총이었는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누린 모든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용서 청합니다. 남은 삶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 은총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영식 펠릭스
(성요셉 성당)



웹다임

인생은 60부터! 노화는 몇 살부터?

“내도 인자 나가 칠십인데!(나도 이제 나이가 일흔인데)”라는 부친의 하소연에 한참을 웃으셨다며 저희 수녀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버지가 경로당에도 안가고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는 모친의 메시지에 문득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어 부친께 집에만 계시지 말고 경로당도 좀 나가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수녀 딸의 권유를 잠자코 들으시던 부친께서는 잠시 주저하시다가 얼굴을 살짝 붉히시며, 경로당 형님들이 막내라고 하도 어린애 취급을 하는 통에 자존심이 상해 막내가 들어 오기 전에는 가고 싶지 않으시다고 불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사소한 변화에도 가슴이 철렁하는 노령의 부모님인 줄만 알았는데, 여든, 아흔되신 형님들(1)에게는 그저 놀리기 딱 좋은 귀여운(2) 막내이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수녀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태어난 해의 간지(干支)가 돌아온 것을 경축하며 동네잔치를 열던 시절과는 달리, 평균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요즘에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구호가 아니라 팩트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정년을 넘기면서 기존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내려놓고 재취업을 통해 인생의 2막을 활기차게 개척해가는 영시니어 혹은 액티브 시니어

세대의 등장도 한 몫 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실제로 무병장수하신 전 세계 100세 어르신들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이를 물으면 많은 분들이 60-70대라고 답하신다고도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이 지나는지도 모르고 스펙을 쌓기 위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함부로 힘을 소모하며 청춘을 보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람들을 건사하기 위해 무진애를 쓰며 중년을 보내고, 비로소 철이 지나는 자연의 원리와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섭리를 알아보는 혜안(慧眼)이 열리는 무렵에야 비로소 참된 인생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진심을 꺾고 눌러 담아 “인생은 60부터!”를 외쳐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인생이 60부터 시작이라면, 인간의 노화는 몇 살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에 관해 앞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노화의 현상과 특징들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선 영덕막달레나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심리학박사)

독자 투고

곡식 단 안고 기뻐하리라!

작년에는 유월부터 한여름 무더위가 덮쳤다. 내 인생에서도 지난 유월의 폭염처럼 일찍부터 열병 같은 고난을 겪은 시기가 있었다.

세 아이를 둔 엄마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시내 사립여중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교직생활 초기, 힘들고 아찔했던 처음 몇 개월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나에게 다가와 준 천사 같은 김금자 선생님, 상담교사를 맡고 있으면서 가톨릭신자인 선생님은 가톨릭 서적을 빌려와 함께 읽어 나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책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의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했다.

젓바퀴 도는 빈틈이 없는 그런 나날이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고 계심을 느꼈다. 나는 꾸르실료, 성령 세미나, 통신성서 등을 통하여 하느님께 조금씩 다가갔다. 늦게서야 내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과 시련이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절로 감사와 찬미의 기도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돌이켜 보면 내가 겪은 고통은 지난 6월의 폭염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명예퇴직 후 낮 시간에 레지오를 하고 성경을 배우러 다니니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 꿈 같이 느껴졌다. 이스라엘 성지, 파티마, 루르드 성모 발현지 순례도 경험하였으며, 본당에서는 노인대학이 열려서 합창, 성극, 피정, 여행 등 부담 없이 배우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아이들 셋 모두는 이제 성장하여 혼배성사를 받고 성가정을 이루어 손자 손녀가 여섯이 되었고, 증손자까지 태어났으니 이들이 나의 돌도 없는 보물이다.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큰 선물임을 깨달았다.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그때마다 하느님을 생각하고 의탁하면서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제는 겨울맞이 준비를 할 때이다. 우리 부부는 하느님을 함께 바라보며 걸어온 이 길에 주님께서 동행 해주셨음을 굳게 믿으며,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맞이하련다.

박숙자 레지나
(성바울로 성당)



건강한 음식 건강한 노년

마파두부

재료 : 두부 1모, 쇠고기 30g, 대파 1줄기, 피망 1개, 붉은고추 1개, 생강, 다진마늘 1큰술, 고추기름 1큰술, 두반장 1큰술(된장 1/2큰술), 물 1컵, 설탕 1작은술, 녹말가루 1작은술, 소금, 후추, 참기름 각 조금씩

-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살짝 데치고 물기를 뺀다.
- 피망, 대파, 고추, 생강 등을 다지듯이 잘게 썬다.
- 팬에 고추기름을 넣고 파, 마늘, 생강, 고추 등을 넣고 볶다가 두부를 넣고 물을 넣어 끓인다.
- 물이 끓으면 두반장과 설탕을 넣어 더 끓인다.
- 간을 맞추고 소량의 물녹말을 풀 다음 참기름을 넣어 마무리

Tip! 두부는 단백질과 식물성지방이 풍부하다. 밥에 부족한 필수아미노산 라이신이 풍부하여 같이 섭취하면 영양효과가 크다. 칼슘도 많고 소화 흡수가 매우 높으며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다.

가톨릭 금빛신문

대구 중구 남산로4길112 교육원 가동 3층 가정복음화국
발행인: 조환길 주간: 박상용 편집: 기획팀(총괄 김사훈)

대표전화. 053-250-3077 Fax. 053-250-3078
E-mail. dgfamily@dgca.or.kr 기사제보 및 문의. 053-250-3114

가정복음화국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 평균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살레시오 기자단이 가톨릭 금빛신문과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2017년 4월 30일 창간 _ 매월 마지막 주일 발행

가족성지순례 (10)

제주 교구 김기량 순교 기념관

- 복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 현양비 -



가는길

제주공항(101 버스 승차) → 함덕환승정류장 하차 후 도보 이동 (제주공항 기준 1시간 소요)

복자 김기량 펠릭스는 제주도 조천읍 함덕리 출신으로 제주의 첫 영세자이며 첫 순교자이다. 무역상이었던 그는 1857년 제주 근해를 항해하던 중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중국 광둥성 해역에서 구조되었다. 이후 파리 외방 전교회 극동 대표부로 보내졌는데 이곳에서 조선인 신학생 이만돌 바울리노를 만나 교리를 배워, 1857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 홍콩 부대표인 루세이유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조선으로 귀국하였다.

그는 제주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1866년 병인박해 때 예비신자들의 여비 마련을 위해 그들과 함께 박하유(薄荷油)를 팔러 거제도에 갔다가 포졸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며 그 후 통영 감옥에 투옥되었다.

관아에서 장살형(때려 죽이는 형벌)을 받아, 수없이 많은 곤장을 맞았으나 꺾이지 않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갇힌 교우들에게 치명할 것을 권면하였다.

1867년 1월 51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는데 관헌들은 김기량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가슴에 대못을 박기까지 하였다. 김기량은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때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었다.

제주교구는 2020년 1월 그의 고향인 함덕리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순교 현양비, 기념관, 경당, 순례길을 만들어 그의 순교 정신을 새기고 있다. 제주도에 가시면 복자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순례하시기를 권합니다.

취재 : 박정자 엘리사벳 | 샬레시오 기자



54호 가정미션 : 친교의 해를 맞아 쉬는 교우 회두를 권면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세대별 의견 듣기 -

주로 TV 프로그램을 집 TV로 본다? 모바일로 본다?

이 설문은 세대별 다양한 의식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대해 비판이나 부정적 시각은 삼가 주십시오.



▲ 설문지 링크

설문기간 2023.01.29(주일) - 2023.02.12(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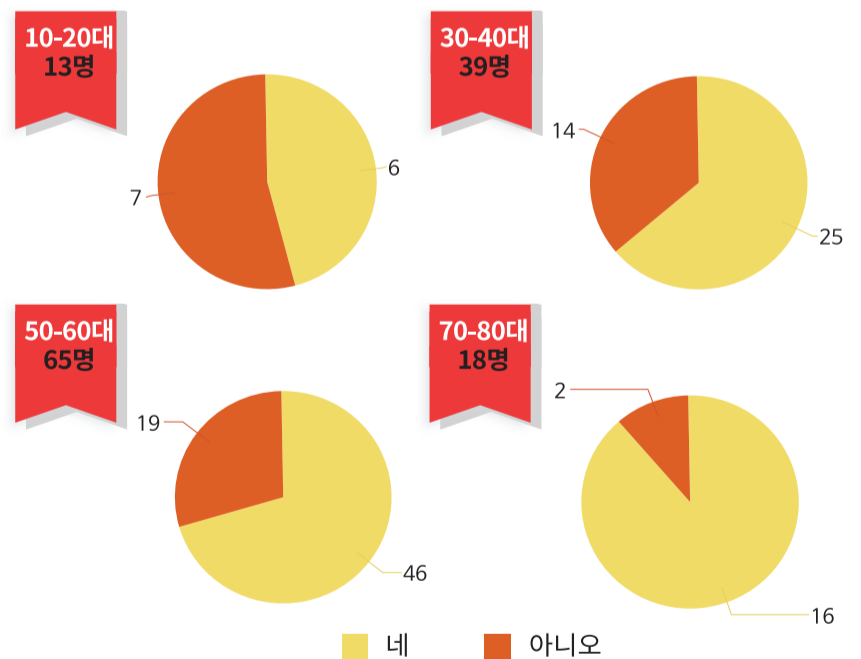
응답방법 ① QR코드 접속 후 제출
② 아래 작성 → 사진촬영 → 카카오톡채널 '가정복음화국' 발송

54호 세대별 의견 듣기 설문

- 연령대 : (세)
- 주로 TV 프로그램을 집 TV로 본다? 모바일로 본다?
집TV / 모바일

지난(53)호 설문 결과

주제 : 새해계획을 세우시나요?



공의집, 지구

- 교황회칙 「찬미받으소서」로 살기 II -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영성 40주간 온라인 강의

가격 | 1,500원

문의 |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3114

공지사항

독자 투고 모집

※ 가톨릭 금빛신문에서는 독자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 dgsalesio@naver.com

주제 및 분량 : 가족과 관련된 추억의 사진과 설명글(300자 내외)

어르신들의 신앙생활(500자 내외)

※ 보내실 때 성함 및 연락처 필수 기입

문의 |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 3114